

최후결전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핵머섯구름을 몰아오려는 전쟁미치광이들에 의해 한 초, 한 초 전쟁의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는 일촉즉발의 이 시각!

중요와 섬멸의 용암이 분화구를 찾는 이 나라의 산과 들은 그대로 진면대결전의 참호가 되었다.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총을 든 병사가 되었다.

돌아보면 미국과 너무도 계산할 것이 많은 이 나라 인민들이다.

해방의 만세소리가 진감하던 이 땅의 허리를 돌로 갈라놓은 분렬의 원흉, 공화국을 요람기에 암살하려고 침략전쟁의 불집을 일으키고 전후 60년 동안 무고한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불구대천의 원수 미국.

이제 더는 참을 수 없고 더는 용서할 수 없기에 분노한 백두산강군이 정의의 보검을 들어쥐고 공격진지를 차지하

었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적진을 단숨에 깔아뭉개며 달려 나갈 무적의 철갑대오가 돌음을 높이고 있다.

적의 아성을 불도가니에 쓸어넣을 멸적의 기상으로 만장약된 강철포신들과 전락로켓들이 침략의 무리들을 빠짐없이 조준경에 잡아넣고 발사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적들이 감히 내 나라의 푸른 하늘, 푸른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무자비한 불벼락,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을 안길 결사의 각오를 안고 영웅한 비행사들과 해병들이 출전대세에 들어간다.

인민군대만이 아니다. 이 나라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도 손에 손에 총을 들고 침략세력을 완연 격멸하기 위한 전진행동에 용약 떨쳐나섰다.

모든 사업이 전진태세로

전환되고 손에 총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찬양해나가고 있다.

평범하고 소박한 한 녀성의 목소리가 지금도 울린다. 《나에게도 총을 달라. 우리 녀성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원수 미제에 대한 중요 불덩이를 다 쏟을 수 있게 만장약된 총을 달라. 조선녀성의 이름으로 미국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겠다.》

이것이 어찌 평양시 모란봉구역 서흥동 8인민반에 사는 전진희녀성만의 심정이라고 하겠는가.

세기를 두고 벌려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기 위한 준엄한 이 시각 일터와 사는 곳, 직업과 직무, 성별과 나이는 달라도 모두의 가슴에 이 서 함양처럼 끓어번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침략자 미제와 너절한 주종세력들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복수의 일념뿐이다.

수도건설위원회 대동강플레시업소 로동자 배운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신성한 우리 강토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시각은 왔다. 원수들은 지금 온 나라가 경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후의 표하신 작전계획에 따라 전진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라. 우리 로동계급은 적들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천금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으로 놈들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 성취할 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문창원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은 선조조국의 지식인으로서의 나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나는 일단 명령만 내리면 (나가지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하고 노

래부리며 우리 학생들의 맨 앞장에서 원수격멸의 돌격전에 나서겠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 죽기마련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하였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복수심이다.

원수격멸의 의지로 만장약된 선조조국의 본대를 세계 앞에, 역사 앞에 보여줄 때는 이 시각 공격진지를 차지한다.

이제 벌어지게 될 거족적인 반미항쟁은 백년속적 미제가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을 총결산하고 쌓이고 쌓인 원한을 통쾌하게 풀게 될 최후승리의 성전이다.

이 시각 공격진지를 차지한 무적의 백두산강군이 조국통일대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무도와 장제도, 월내들의 첫 포성을 기다리고 있다!

온 나라가 최후결전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명령만 내리시라

—평양인쇄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멸적의 의지가 평양인쇄공업대학의 교정에 서리발치고 있었다.

커다란 속보판들에 나붙은 《우리는 준비되었다》, 《명령만 내리시라》, 《관가리싸움에 한몸바치리》, 《총후란!》, 《결사옹위!》라 하는 힘있는 글발들...

우리와 만난 리상권학생은 내일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펜을 들고 일촉즉발의 정세를 주시하면서 만단의 전투동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모두가 전신으로 용약 달려나갈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의 불벼락을 들뜨을 멸적의 의지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경가 끝난후 느뭇은 교정은 대학생들이 즐지어 모여들었다.

로동적위대부를 입고 붉은

별 빛나는 모자를 눌러 쓴 대학생들이 전시가요대렬합창으로 교정을 들렀다놓는 것이었다.

《조국보위의 노래》와 《진군 또 진군》, 《해안포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칙칙 발구름소리 높이 대렬합창을 하는 청년대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제와 그 주종세력을 단숨에 요정멸 불라는 결의들이 어려 있었다.

우리는 그들속에서 산업미술학부 청년동맹인군인 양성준동무를 만났다.

그는 대학생들이 학습도 전투라는 구호를 들고 원수들을 쳐부시는 판가리싸움에 나가는 그날까지 학과학에 열중하면서 강의 후에는 학부별로 웅변모임과 전시가요합창 등 여러가지 활동을 벌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제원수의 털가슴을 겨누고 너도나도 조준렌슬을 하고있다고 하였

다. 산업미술학부 청년대학생들은 오늘의 격동상태를 담은 여러가지 선전화들 과 소묘작품도 창작하였다고 한다.

훌륭한 선전화작품을 창작한 학생들중에는 졸업반학생인 조국영도 있었다.

《저는 졸업문물을 쓰는 마지막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후면 전공분야에 배치되어 돈 한푼 안내고 대학 공부까지 시켜준 고마운 조국에 보답할 희망과 포부에 넘쳐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먹여보겠다고 호시탐탐 노리고있는데 저 하나만의 리상을 꽃피우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일먼저 이 손에 총을 잡고 원수격멸의 결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바야흐로 다가오는 최후결전의 그날 전에서 다시 만나고도 끝내 약속하며 우리는 교정을 떠났다.

본사기자 박단희

감히 움쩍하기만 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대연평도, 백령도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관찰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겠다는 소식이 접한 우리 로동적위군대원들은 끓어오르는 흥분을 안고 최후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온 미국과는 이제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것이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이

다 다양화된 정밀핵타격수단들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각종 무장장비들을 갖추고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이다.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차박산내며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서겠는 것이 공화국의 불멸의 립장이며 백두산 식대옹방시이다.

그런데도 지금 적들이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조치들에 대해 그 무슨 《심리전》이냐, 《내부결속용》이냐 하고 떠드는것은 우리를 너무

도 모르는 백지, 천치들의 망발인 것이다.

이제는 이 땅에 더는 정전협정의 시효도, 북남불가침선언에 의한 구속도 없다는 것을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명심해야 한다.

원수들을 최종격멸할 조국통일대전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그 시각이 오면 우리 로동적위군의 전체 대원들도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최후결전장에 뛰어들어 적대세력들의 숨통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겠다.

로동적위군 대원 김 권혁

나는 경에하는 원수들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속에 해빛밝은 교정에서 세상에 부러울것없는 배움의 나라를 활짝 꽃피워온 10대의 학생이다.

남들처럼 꿈도 많고 희망과 포부도 컸던 나는 중학교졸업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이 많았다. 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되고싶고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되고싶고 또 어릴 때 품었던 희망대로 원예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을 뒤로 미루고 나는 조선인민군 입대를 선함으로 찬원해나섰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우리의 귀중한 모든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고있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미제와의 최후판가리대결전에 떨쳐나선 지금 당과 국가의 사랑과 배려만을 받으며 자라온 내가 설 자리가 과연 어디였는가. 그것은 조국보위의 초소이고 원수격멸의 화선이다.

지금 나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청년학생들이 저저마다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찬원해나가고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할아버지가 입었던 군복을 오늘도 내가 입고 침략자, 호전광들을 강그리 소탕하고 조국통일대전의 자랑찬 승리를 안아오기 위해 나는 이제 곧 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가련다.

평양동흥중학교 6학년 학생 박수민

전쟁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겠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대기를 헤가르며 번개같이 날오는 포탄들, 작렬하는 그 명중포탄들에 얻어맞아 혼적도 없이 사라지는 가슴스러운 적가상목표들.

얼마전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대연평도, 백령도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관찰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소식이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격동의 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얼마나 가슴후련하고 통쾌

한 장면인가.

달아오른 그 포신들은 아직도 식지 않았으며 분노와 복수의 일념으로 만장약된 우리의 주체포, 방사포들에서 다시금 화염이 쏟아져나올 때 가장목표가 아니라 적진과 적의 아성, 불을 즐기는 침략의 본거지가 형체도 없이 날아났었다.

나는 부흥하고 문명화한 나라건설의 꿈을 안고 탐구의 뜻을 든 과학자의 한사람이다.

기억도 생생하다. 교정에서, 일터에서 창조와 사색의 열정으로 잠 못 이루던 그

날날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향시적인 도발과 전쟁책동으로 이 땅에는 전쟁위험이 가세될 줄 몰랐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땅에 정전협정의 시효도, 북남불가침선언에 의한 구속도 더는 남아있지 않는 이 시각 만약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기어코 전쟁의 도화선을 불을 지른다면 그 즉시 펜을 총대로 바꾸어쥐고 조국수호에 용약 떨쳐나서겠다.

교육과학원 연구사 윤준만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싸움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민군군인들과 로동적위군 대원들

전쟁은 준비를 모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피회호전광들의 범죄적인 북침선제공격연습이 최절정을 이루며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고대하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이 땅에 거어어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는 무분별한 도발행위이다.

《키 리츨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는 용군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수십만명의 병력과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동원되고있으며 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주종국가무력들도 투입되고있다.

이런 침략적인 전쟁연습은 《년례적인 훈련》, 《방어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피려치한 꾀변이 아닐 수 없다.

그룹이 맞으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시험을 놓고 《제재결의》를 채택하다 못해 위협적인 전면대결전까지 벌려놓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온 겨레가 분격하고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수호를 위한 전진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어올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평화애호적립장과 선군의 강력한 힘 그리고 고도의 자체력의 결과였다.

그 덕을 토틀히 보며 살아온 남조선보수패당이 오히려 그 무서운 《도발》을 운운하며 외세와 야합하여 거어어 전쟁의 불집을 티뜨리려 하고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적대세력의 《핵선제타격》을 고스란히 받을 공화국이 아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이미 전쟁준비를 완결한 조국통일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

만약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무모한 불장난의 불꽃을 이 땅에 한점이라도 뿜긴다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수십년세월 다지고다져온 힘을 총폭발시켜 침략의 본거지들과 아성을 불바다에 잠그고야말 것이다.

전쟁에서는 자비가 없다.

남에게 불소나기를 퍼붓는데서 쾌락을 느끼는 미국과 그 사라구니에 붙어 연명하는 남조선호전파들이 진전 전쟁의 불벼락을 맞을 때 아무리 후회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권지혜

다중화된 정밀핵타격수단들까지 갖춘 공화국의 강력한 군사적위력에 대해 세계의 군사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이 현일 전하고있다.

지난 12일 미국정보기관을 지휘하고있는 제임스 클레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미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가하여 공화국이 지난달 제3차 지하핵시험을 하고 지난해 4월 이동식대륙간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무기를 공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선이 《미국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실토하였다.

공화국의 제3차 지하핵시험이 행성을 뒤흔든 직후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 김관진 의원은 《국방위협전체회의에서 《핵무기는 절대무기이고 핵무기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불안과 위기를 표시하였다.

남조선의 한 대북전문가는 북이 얼마전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핵보유국이 되자면 핵원료개발과 기록장

치, 운반체 등 3단계가 필요한데 이제 완벽하게 성공한셈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명실상부하게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라고 평하였다.

다른 대북전문가들속에서도 공화국의 지하핵시험과 관련하여 《이런 핵시험은 과거의 핵시험과는 비교대상이 안된다.》, 《북은 세계에서 열손가락안에 꼽히는 핵미사일보유국이 되었으므로 공세적핵능력을 과시하였다.》, 《수많은 핵실험을 가진 북에 대한 군사공격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수 있는 여러적은 선택》, 《북이 반격에 나설 경우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것이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북이 반격에 나설 경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될것이다》

남조선의 《KBS》, 《런합뉴스》, 《조선일보》, 《아시아경제》를 비롯한 주요언론들도 공화국의 제3차 지하핵시험이 《완벽하게 성공한 높은 수준의 핵시험》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북이 시험한 핵무기가 2차 핵시험때보다 적은 량의 핵물질을 가지고 강력한 파괴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만큼 핵개발기술에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본 것이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겨냥한 북의 장사정포공격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은 개진초기 1만 3 000여명의 포로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을 쏟아부을것으로 예측했다. 장사정포사격에 의한 대규모 인명 및 시설피해는 포로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을 쏟아부을것으로 예측했다. 장사정포사격에 의한 대규모 인명 및 시설피해는 포로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을 쏟아부을것으로 예측했다. 장사정포사격에 의한 대규모 인명 및 시설피해는 포로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을 쏟아부을것으로 예측했다.

《〈한〉 미량국군이 2004년 실시한 《위계임》 시뮬레이션(모의실험)에 따르면 《한》 반도에서 전쟁발발후 24시간이내에 수도권 시간과 《국군》, 《주《한》 미군을 포함한 사상자가 230여만명에 달하는것으로 추산됐다. 1994년 추정치 150만명에서 1.5배 늘어난 수치다. 《한》 미연합군이 전쟁초기에 이처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본 근거는 서울과 수도권에 겨냥한 북의 장사정포공격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은 개진초기 1만 3 000여명의 포로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을 쏟아부을것으로 예측했다. 장사정포사격에 의한 대규모 인명 및 시설피해는 포로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을 쏟아부을것으로 예측했다.

류저장시설, 전기, 통신시설 등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2차피해가 더 클것으로 분석됐다. 북의 이른바 《서울바다》 발원도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것이다. 더욱이 전면적으로 치달을 경우 북은 고폭탄 등을 사용할것이다.》

남조선의 《문화일보》는 북의 제3차 지하핵시험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시험하는 마지막절차》라고 하면서 《북이 핵역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담판도 가능하다. 북은 이번 핵시험이후에도 적대정책을 철회하라고 미국을 겨냥했다. 완벽한 핵역력을 보유한 북은 동북아시아정세를 좌지우지할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공화국의 불패의 군사적위력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고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겨레에게는 승리 의 신실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있다.

본사기자